

필자가 생각하는 가이드를 함께 작성하였습니다. 가이드가 확실한 정답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수준으로 여기면 될 것 같습니다. 각자의 배경이 다 다르고 배경을 표현하는 방법도 다양하기 때문에 지원서 합격에 대한 정답이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참고해 주세요. (이런 면에서는 오히려 누군가의 글을 보지 않아야, 조금 더 본인의 개성이 담긴 글이 나올 것 같습니다. 때문에, 해당 지원서는 본인이 먼저 모든 문항을 기재한 다음 퇴고의 과정에서 읽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기소개서 파트

자기소개서 (1000자 이내)

[방향을 극복하는 계획의 힘] 저는 사춘기 이후, 항상 고민을 앓고 사는 학창시절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20 살까지의 인생은 보람보다는 아쉬움이 더 많았습니다. 그러나 청소년기의 고민은 제가 지금까지 끊임없이 도전하고 일어설 수 있게 만들어주는 자양분이 되었습니다. 저는 대학에 입학한 이후로,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 계획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큰 틀에서 몇 개의 장기 계획을 세우고, 그 장기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작은 목표들을 계획하고 하나씩 실천해가며 아쉬움보다는 보람으로 대학생활을 채워 나갔습니다. 이렇게 제가 세운 계획들 속에서 진정으로 제가 좋아하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기 위한 시도들은 저를 다채롭고 지혜롭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또한 학업 측면에서도 저를 찾기 위한 여러 시도를 하다 보니 컴퓨터 공학이 주전공이지만, 다른 학문도 관심이 많아 기술경영을 복수전공으로 채택하여 배움의 즐거움을 느끼며 대학생활을 보내 되었습니다. 전공이 2 개가 되면서 하나의 전공을 공부하는 친구들보다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기 싫어, 2 개의 전공 모두 깊이 있는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대학에서 진행하는 정규교육 이외에도 인터넷 강의, 책을 통한 독학, 외부 스터디와 세미나 등을 꾸준히 참여하고 학습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저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각종 공모전과 대외 활동에 도전하며 성장하기 위한 크고 작은 계획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들을 차례대로 달성해 나가며 2 개의 전공분야 모두에서 교내외 공모전들을 수상하기도 하고 기술력을 인정받아 프리랜서계약도 체결하고 누군가를 가르친 경험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학부 3 학년이 되어서는 ‘늦게 배운 도둑이 날 새는 줄 모른다’라는 속담처럼 보안에 빠져들어 날 새는 도둑처럼 보안공부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제가 어디까지 더 성장하게 될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한 걸음씩 미래로 향하는 발걸음이 즐겁고 기대가 됩니다.

약간의 팁?

자기소개서 파트는 어느 정도 과장을 보태어 작성했기 때문에.... 한 없이 부끄럽습니다.(그래서 이 부분은 가능하다면 편집을 부탁드립니다ㅠㅠ) 개개인마다 배경이 다르니 자신만의 이야기를 잘 녹여내어 작성하면 좋은 스토리를 완성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00 자를 요약할 수 있는 두괄식형태의 제목을 작성한다면, 흥미를 유발하고 가독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본인이 이룬 가장 큰 성과 및 사례 (1000자 이내)

저는 해외에서 '블록체인 CTF' 라고 불리는 워 게임 형식의 'Ethernaut'을 한국인 최초로 끝까지 풀고 해설을 제 블로그에 진행한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블록체인에 대해 깊이 빠져 외부세미나 및 개발자모임에 참석하며 실력을 쌓아올렸습니다. 수동적인 공부가 아닌 능동적인 자세로 살아있는 공부를 한다는 느낌을 받으며, 진정성 있게 임하니 결과물도 따라오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2018년 국가암호 공모전'의 분야 중 하나였던 스마트컨트랙트를 활용한 기술분야에 작품을 출품하여 특별상을 받고, 블록체인을 활용한 보안성이 향상된 감시장치라는 발명(10-2018-0145319)으로 특허를 출원하였습니다.

공모전 수상과 특허출원도 너무나 행복한 경험이었지만, 이더넷 문제풀이와 해설을 진행하며 보안에 관한 관심과 로우레벨에 대한 이해도가 깊어져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문제를 풀 당시에 한국에서 블록체인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많았지만, 블록체인 보안과 관련된 관심을 가진 사람은 타 국가에 비해 적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본격적으로 문제풀이를 진행한 작년 7월에 미국, 일본, 중국 등과 같은 나라에서는 여러 사람들이 풀이를 진행하였지만 국내에서는 소수였습니다. 저는 마지막 단계까지 한국에서 최초로 풀고 해설을 진행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약 5개월 동안 이더넷 문제풀이에 노력하였습니다. 이전까지는 보안에 대하여 깊은 지식이 없었지만, 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블록체인 세계에서 발생했던 각종 보안사고를 분석하고 시큐어 코딩과 디자인패턴 오버플로, 비트 시프트 및 마스크, 어셈블리, 리버스 엔지니어링 등 각종 보안 분야들을 공부해가며 풀이와 해설을 블로그에 기록하였습니다. 문제풀이를 진행하며 기존 보안에 대한 지식이 없다 보니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풀이해설 연재를 마감하고 나니 시작했을 시기와 비교해 보안적 지식도 몰라보게 성장했을뿐더러 당시 느꼈던 거대한 감동은 지금까지도 보안 공부에 대한 흥미와 큰 힘을 주는 계기였습니다.

약간의 팁?

본인이 이룬 성과 부분은 본인만의 특징을 보여줄 수 있는 사례를 선택하여 해당 사례를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었는지의 초점을 맞추어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많은 활동을 했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기록을 간략하게 기술하고 가장 특징적인 것을 중점으로 작성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정답은 아닙니다.

지원동기 사례 (1000자 이내)

정보보안 인재로서의 더 나은 모습을 갈구할 때마다 그 끝은 매번 BoB 로 귀결되었던 사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례 1] 보안에 대한 역량 강화를 위해 각종 콘퍼런스와 세미나를 자주 들으며 정보보안인재의 꿈을 키워 나갔습니다. 특히 한국 암호포럼의 미래암호워크숍에서 ‘KT 김형수 박사님’의 ‘양자 키 분배 기술 개발 및 표준화 동향 발표’가 매우 기억에 남습니다. 아직 양자암호에 대한 배경지식이 없어 그날의 발표를 이해하기는 어려웠지만, 보안 리더를 꿈꾸는 저에게 뜨거운 불꽃을 가슴속에 품어준 계기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국가대표를 떠올리면 국가대회에 참가하는 운동선수만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저는 이날 발표를 듣고, 대중이 주목하지 않는 곳에서 국산기술을 표준화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수많은 학자의 노고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런 분들이야말로 진정한 국가대표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BoB 를 통한 차세대 보안 리더로 성장하여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고 싶습니다.

[사례 2] 모거래소 해킹사태가 발생했을 때, EVM 의 슬롯구조를 정확히 이해하여 헥사코드로 작성하고 배포하여 범죄자로 의심되는 계정에 옮겨진 토큰을 동결시켜 2 차 피해를 막은 경험은 정보보안에 더욱 흥미를 갖고 몰입할 수 있는 동기가 되었습니다. 업계 최고의 전문가인 BoB 멘토님들로부터 통해 블록체인 이외의 분야에서도 보안사고를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는 교육을 받아 안전하게 시스템을 지킬 수 있는 보안 전문가가 되고 싶습니다.

[사례 3] 저는 현재 블록체인과 보안에 관심이 많아 블록체인 기반 DNS 보안 플랫폼과, 디도스 방어 구축 솔루션을 구현하기 위해 외국 저서를 읽으며 공부하고 있지만, 보안에 관한 체계적인 공부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BoB 에서 제공하는 전공교육과정을 통해 보안 인재로서의 내실을 채워나가고 싶습니다. 앞서 언급한 이런 사례들은 명실상부 세계 최고수준의 정보보안 인재 양성의 메카인 BoB 에 꼭 들어가 그 꿈을 실현할 수 믿기에 이번 8 기 모집에 지원하였습니다.

약간의 팁?

구체적인 사례 소개를 통해 왜 비오비에 들어가야 하는지 설득하는 형태로 작성해 보았습니다.

[사례 2]의 경우 뉴스(<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9/03/185757/>)에도 언급되었던 실제 사건이었지만.... 해당 관계자들 사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편집 부탁드립니다...

합격 후 포부 (1000자 이내)

대한민국 최고의 정보보안 인재를 양성하는 BoB에 합격한다는 것은 제 인생에 가장 자랑스러운 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준비과정이지만, BoB를 통하여 만나게 될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 보안 리더로 성장할 동기들을 머릿속으로 그려보니 심장 소리가 요동칩니다. 저는 정보보안의 지식이 부족한 만큼 성장할 수 있는 폭도 크기 때문에, 저를 키워 주실 멘토 여러분들을 최대한 귀찮게 만들고 싶습니다. 치열하게 고민할 준비가 되어있기 때문에, 이해가 될 때까지 질문하고 확실하게 알 때까지 검토받으며 차세대 보안 리더로서의 모습으로 탈바꿈하겠습니다.

저는 대학생활 동안 다양한 팀 프로젝트 및 스터디 그룹을 통해 집단지성의 순기능을 체험해 보았습니다. BoB에는 정보보안에 대한 재능과 저보다 많은 노력을 통해 보안지식을 갖춘 우수한 동기들이 준비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도 학부과정 동안 보안과 컴퓨터공학 분야에서 지식과 기술을 체화하려 노력하였기 때문에 서로의 장점을 공유하고 단점은 극복하며 최고의 팀원으로 기억되도록 전진하겠습니다. 집단지성을 통한 순기능을 극대화 시키기 위한 협업과 경쟁에 최선을 다한다면, 경연 후에 선정되는 30인과 평가를 통한 Best 10 선정도 자연스럽게 가까워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제가 만약 BoB 8기 수료의 영광을 맞이하게 된다면, 제 인생에 주어진 혜택이라 생각하고 사회에 나가서도 정보보안인재를 꿈꾸는 인재들에게 성장의 기회를 물려줄 것입니다. 실제로 저는 저희 학교에서 암호와 보안을 가르키며 재직 중인 서화정 교수님의 우연한 기회를 통해 보안에 본격적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교수님께서도 인재 양성을 위하여 자신의 사비를 투자하여 국내 석학들을 만날 기회를 주시고,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여 많은 학우에게 도움을 주셨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멘토님들의 열정 어린 교육과 BoB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프로그램 사활을 걸고 참여하여 인생에 마지막에서 되돌아봐도 가장 기억에 남는 2019 하반기를 보내고 싶습니다.

약간의 팁?

포부를 소개하는 부분에서는 열정을 보이기 위하여 감정적인 단어들과 마음가짐 및 자세를 표현하려 중점을 두고 작성하였습니다. 본인만이 보여줄 수 있는 절실함을 보여 주는 것이 포인트 인 것 같습니다.

학습계획서 파트

관심분야 (1000자 이내)

저는 블록체인 활용한 보안에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작년 카카오 콘퍼런스에서 공개된, “액티브 X 없는 블록체인 기반 PKI 시스템” 강연을 듣고 블록체인을 활용한 보안의 발전 가능성을 발견하였습니다. 아울러 해외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여 MFA 인증, DNS 보안 플랫폼에 활용되는 DNS 체인, DDoS 완화 아키텍처들을 공개하는 것을 보고, 블록체인의 장점을 활용한 보안의 발전은 앞으로도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천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기술의 습득을 위해서는 블록체인 코어 및 저수준에서의 동작에도 정통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해당 기술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했습니다. 실제로 저는 블록체인을 연구하면서 스마트컨트랙트에 사용되는 언어이외에도 저수준에서의 작동과 어셈블리를 공부하여 어셈블리로 작성한 코드를 배포한 경험이 있습니다. 또한, 블록체인 보안사고를 공부하기 위해 블록체인 위게임을 진행하며 취약점 분석에 대한 문제풀이에 관심이 생겨 CTF에 참가하는 것을 목표로 시간이 날 때마다 CTF 서적을 보며 정보보안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러한 블록체인 융합형 보안 기술들은 블록체인의 이해도와 동시에 시스템 보안, 웹 보안등의 기존 보안의 영역에 대한 이해도도 요구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꾸준히 보안기초지식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웹 개발을 주로 공부한만큼 웹 보안 기술에 관심을 가지고 관련 서적을 통해 SQL, Command, CSRF 인젝션과 XSS 등의 공격기법들과 대응방법들을 학습하고 웹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자주 발생하는 인증 우회, 접근제어 기능, 세션관리 미비, 정보 노출에 대한 취약점을 공부하였습니다. 공부한 취약점들을 자동진단 툴 OWASP ZAP를 사용하여 통신하는 패킷의 상태를 확인하고 모의 사이트에 대하여 동적 스캔을 통해 취약점을 진단한 경험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안전한 웹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수동 진단 방법과 네트워크 보안, 서버 보안등을 공부하여 실력을 쌓을 것입니다.

약간의 팁?

관심분야 파트의 경우 앞선 질문들과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들로 기술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또한 면접을 대비하여 본인이 확실하게 알고 있는 지식들을 기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필자의 경우 시스템 보안도 공부하였지만 과연 '내가 남들에게 정확하게 설명 할 수 있을 까?' 라는 고민을 스스로 던져보고 수정하였습니다.)

학습계획 (1000자 이내)

인터넷에서 BoB를 수료한 선배분들의 후기를 읽어 보았을 때, 교육 1단계 전공교육 과정에서 혀를 내두를 정도로 치열한 순간을 회고하는 글들을 보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도 그 일원이 되어 치열하게 공부하는 상상을 자주 하곤 합니다. 전공교육과정을 완벽하게 소화하기 위해서는 공부의 의지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체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는 대학시험 기간 때마다, 첫차를 탈 수 있도록 일찍 일어나 고요한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을 즐겼는데, 이는 평상시에 꾸준한 체력관리를 하였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BoB에 합격을 한다면 실력이 부족한 저 자신을 채워 나가기 위해서 시험 기간 때처럼 새벽 공기를 마시며 센터로 달려가 공부로 긴 하루를 보내겠습니다. 정규과정에서 습득한 지식을 문서화하고 인사이트들을 공유할 계획입니다. 저는 근 1년 동안 제가 공부한 지식을 제 깃허브와 블로그에 각각 300여 개 이상의 커밋과 24편의 글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런 작업들은 저의 지식을 더욱 탄탄하게 만들어 성장에 이르게 해주었습니다. 이 때문에 주어진 수업과 과제를 완료한 이후 남은 시간을 활용하여 습득한 지식에 인사이트를 첨부하여 문서화 작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교육 2단계가 되면 1단계에서 배운 지식을 활용하여 제가 그동안 공부해왔던, 블록체인 기반 DNS 보안 플랫폼과 디도스 방어 구축 솔루션 등과 같은 블록체인 기반 원천기술에 관한 결과를 논문으로 발표하고 싶습니다. 아울러 저는 작년, 외국 논문을 읽으며 영어로 발표하고 싶다는 생각을 여러 번 하고 영어스피킹을 위한 1년치 프리패스를 구매하여 수료하였습니다. 영어스피킹에 대한 자신감이 물오른 지금 기회가 된다면 영어로 도전하고 싶습니다. 또한, 그동안 워 게임을 통해 알려진 취약점 분석만을 진행해보았지만, 아직 발견되지 않은 취약점을 찾아 CVE 리스트에 취약점을 등록시키고 싶습니다. 이러한 정보보안의 인재가 되기 위한 발걸음들을 정보보안 인재의 등용문인 차세대 보안리더에서 꼭 해보고 싶습니다.

약간의 팁?

학습계획역시 앞서 기술한 질문들과 일관성(연구 및 관심 분야)을 유지하여 작성한다면 좋은 결과물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진로계획 (1000자 이내)

저는 IT업계에서 업으로써 진로계획과 제 인생에서의 계획 2가지의 목표가 있습니다. 먼저 업으로써 이루고 싶은 진로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뢰를 최우선으로 하는 금융권에서는 신뢰의 기술 블록체인의 활용방안들을 연구하여 혁신을 이뤄내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대부분의 금융권 신입 공채 IT분야에서는 블록체인 직무영역에 대한 전문가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변화의 순간에서 더불어 4차 산업시대에 발맞추어 금융권이 계획하고 있는 핀테크 사업에 일조하고 싶습니다. 금융권의 핀테크 사업에 있어서 고객들의 돈이 오고 가는 만큼 보안기술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향후 블록체인 직무로 일한다고 하여도 블록체인과 정보보안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렇지만 수요에 비하여 블록체인과 정보보안 모두에 전능한 전문가의 수는 적습니다. BoB를 시점으로 정보보안 인재가 지녀야 할 경쟁력을 갖추고 더 발전시켜 정보보안과 블록체인 모두에 깊이 있는 지식을 갖춘 인재가 되고 싶습니다.

제 인생에서의 진로계획은 컨퍼런스에서 연사로 기술발표를 하는 것과 전공분야에 대한 전공서적 집필 및 번역입니다. 그동안 관심 있는 기술들에 대한 최신 동향을 살피려 여러 컨퍼런스에 참석했을 때마다 연사로 무대에 서 있는 저 자신을 상상해보곤 했습니다. 자신의 분야에서 꾸준한 연구를 통해 앞서 나간다면 그것에 대하여 발표할 기회가 많아지는데 이러한 경험을 통해 한 분야에서의 스페셜리스트가 되고 싶습니다. 또한 서적에서도 관심 있는 기술들의 최신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데, 이때마다 대다수의 외국인 저자들의 서적이나 번역본 속에서 한국인의 저서를 발견했을 때 그들에 대한 존경심을 자주 느꼈습니다. 본업 이외에도 기술에 관한 꾸준한 연구를 하며, 최신기술들을 선도하시는 업계 전문가들처럼 저도 그 흐름에 동참하여 한국의 기술에 대한 저변을 넓히고 싶습니다.

약간의 팁?

진로계획 파트의 경우 가장 자유도가 높은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업계의 최신 트렌드를 기재하며 암묵적으로 '내가 그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라는 것을 표현한다면 모범답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가이드를 마치며....

무엇보다 더 좋은 지원서를 작성하는 방법은 끊임없는 퇴고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필자의 1달 전, 미리 작성하고 최종 접수일 전까지 1주일 간격으로 수정해가며 작성하였습니다. 퇴고를 위해 써름하는 시간만큼 좋은 글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